

朝鮮朝 寅劔의 象徵性 研究

趙 赫 相*

1. 寅劔의 梗概와 研究意圖
 2. 寅劔의 實體와 그 象徵意味
 3. 結 論
- 〈附錄〉 寅劔文獻資料

1. 寅劔의 梗概와 研究意圖

조선의 寅劔은 寅年·寅月·寅日, 寅月·寅日·寅時 또는 寅年·寅月·寅日·寅時에 제작된 劔으로, 辟邪를 위해 선조들이 소장하였던 器物이다. 인검은 제작시기에 따라서 三寅劔과 四寅劔으로 나뉘며, 현재 기존의 도검 연구논문¹⁾에 의해서 그 실체가 어느 정도 규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명

작업이 주로 현존유물과 『조선왕조실록』의 인검기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있어서 인검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기물이었으며, 당시 선조들의 관념 속에 존재했던 인검 이미지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는 바로 선조들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한문학 텍스트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검의 본질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인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주로 조선조의 한문학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그 속에 나타난 인검 형상의 의미와 그 이미지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본고에서 인검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논할 한문학 텍스트는 고려조 釋息影菴의 〈劔說〉을 비롯하여, 조선조 宋文欽의 劔銘인 〈三寅七星劔〉, 趙持謙의 〈感懷〉, 申欽의 〈四寅刀歌〉, 俞彦鎬의 〈三寅劔贊〉, 張維의 〈三寅劔賦〉, 鄭斗卿의 〈三寅劔歌〉, 俞漢雋의 〈三寅刀銘〉, 趙龜命의 〈四寅刀賦〉 등이다. 이러한 텍스트를 통해 한문학 속에 나타난 인검의 문학적 형상화에 관한 실례를 종합해보면, 辟邪의 器物로서의 辟邪劔과 士大夫의 義氣를 상징하는 義物로서의 義劔, 그리고 사대부인 君子에게 그러한 의기를 배양하게 해주는 修身物로서의 修養劔이라는 인검의 세 가지 특징적인 象徵性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박사과정

1) 寅劔에 관한 기념비적인 대표 논문으로는 이석재의 『寅劔考』(경인미술관, 2001)·『寅劔과 純陽劔에 관한 연구』(韓國의 刀劔 합동세미나, 육군박물관 주최, 2002)가 있으며, 그 외에도 『刀劔의 機能性 研究』(김성혜·김영섭, 『學藝誌』 6, 육군박물관, 1999)와 『學藝誌』 11, 『朝鮮의 刀劔 特輯』호(육군박물관, 2004)에 수록된 『朝鮮時代 刀劔 研究의 現

況과 課題』(박재광), 『朝鮮時代 刀劔의 類型分析』(이석재), 『晝昔紋研究』(이석재), 『七星劔研究』(김미경), 『朝鮮時代 刀劔에 나타는 紋樣과 매듭장식에 관한 研究』(이승해) 등에서 부분적으로 인검의 실체가 규명되었다.

2. 寅劔의 實體와 그 象徵意味

(1) 辟邪의 神物, 辟邪劔

조선의 寅劔은 寅이 3번 겹치는 때인 寅年·寅月·寅日이나 寅月·寅日·寅時에 만들어진 경우 三寅劔, 寅이 4번 겹치는 때인 寅年·寅月·寅日·寅時에 만들어진 경우 四寅劔이라 한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 의해 알려진 바와 같이, 寅劔은 辟邪의 神物인 辟邪劔으로서 존재해왔다. 묘사스러운 鬼物을 물리치는 벽사의 신물인 인검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인검에 대한 한문학 텍스트를 검토하여 인검의 벽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宋文欽(1710~1752)의 <三寅七星劔>²⁾은 바로 三寅에 제조된 인검의 한 종류인 七星劔의 劔銘이다. 이 검명에서 앞의 두 구절은 바로 삼인칠성검의 외양을, 뒤의 두 구절은 그 검의 기능을 보여준다. 북두칠성의 정기를 칼 속에 모으기 위해 七星文을 금상감으로 칼날에 새긴 칠성검은, 三寅에 제조됨으로 인해 辟邪器物로서의 주술적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월이 陽剛을 도우니, 북두칠성 무늬 밝게 비치네[日月贊剛 星文昭光]'에서 그 특징이 드러난 삼인칠성검은, '잡으면 반드시 베며, 柔道로 이에 끊어버리네[操以必割 柔道是絶]'에서 사용자가 잡으면 柔道로 대상물을 끊어버리는 도구로서 작용을 한다. 여기서의 유도는 劔理의 正道에 따라 부드럽게 검을 운용한다는 개념으로서, 인검의 소지자는 유도로 검을 휘둘러 사된 도[邪道]를 끊어버린다. 사된 도를 상징하는 존재들은 바로 異界의 존재, 즉 怪力亂神의 영역에 있는 귀신이나 도깨비 등이다.

삼인칠성검은 해와 달,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은 칼이다. 日月星宿의 精氣

2) 자료1-『閒靜堂集』卷7 <三寅七星劔>.

가 인검에 모이면, 인검은 단순한 칼이 아닌 鬼物을 제압하는 辟邪의 神物이 되는 것이다.

趙持謙(1639~1685)의 시 <感懷>³⁾에서는 귀신마저도 두려워하는 인검의 辟邪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반딧불주머니가 헤어질 정도로 밤새 大西山과 小西山(二西山)⁴⁾의 기이한 서적[奇書]들을 탐독하여 학식을 갖춘 조지겸은, 삼인검에 의지함으로 인해서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까지도 보유하게 된다. '삼인검에 의지하니 귀신의 마음 떨게 하네[劔倚三寅 鬼膽寒]'라는 구절의 인검은 바로 異界의 존재인 귀신마저도 공포에 떨게 하는 위력을 지닌 검인 것이다. 三寅이 가지는 벽사기능의 주술적 효과로 인해 인검은 일종의 강력한 호신부적으로서 귀신에게 작용한다. 이러한 이劔은 시 속에서 책[書]과 아울러 조지겸의 노년에 있어서 생활 속의 文武兼全을 상징하는 기물이 된다.

漢文四大家의 한 사람인 申欽(1566~1628)의 <四寅刀歌>⁵⁾를 보면, 사된 이계의 존재들을 물리치는 인검의 벽사적 성격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시에서 신흘은 그의 아들인 東陽尉 申翊聖(1588~1644)에게서 선물받은 四寅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흘은 당대의 名臣으로, 아들에게 인검을 선물로 받을 당시에는 1613년(광해군 5)의 癸丑獄事로 인해 삭탈관직을 당하여 조정에서 放逐되어 김포로 내려가 있던 상태였다. 선조의 駙馬였던 신익성은 임진왜란 때는 宣武原從功臣 1등에 올랐으며 1606년(선조 39)에는 五衛都總府 副總管을 지냈다. 후일 병자호란 때 그는 主和派 대신들이 세자를 청나라에 볼모로 보내자고 하자 칼을 뽑아 그들을 위협하기까지 했고, 나중에는 斥和五臣의 한 사람으로서 청나라 심양에 압송될 정도로 상무정신과 반청의식이 강했던 인물이다. 이들 부자는 박제가가 말한 것처럼

3) 자료2-『迂齋集』卷2 <感懷>.

4) 二西山: 중국 湖南省 沅陵縣 서북쪽에 있는 大西山과 小西山. 秦나라 때 어떤 隱者가 이곳에 은거하면서 1천 권의 서적이 감추어진 두 산의 石窟에서 공부했다고 전해진다(『湖廣通志』卷12 「山川志」 '沅陵縣').

5) 자료3-『象村集』卷7 <四寅刀歌>.

‘왕실을 함께 도와 평온하거나 험난하거나 충절을 다한[共獎王室 夷險盡節]’⁶⁾ 사대부들이었다.

〈사인도가〉를 읽어보면, 숲도깨비인 魍와 산도깨비인 夔, 범[虎]과 이무기[蛟] 같은 妖物과 惡獸들을 제압하는 神物로서의 인검 이미지가 한층 더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온갖 요물과 악수들은 숲과 산, 물과 물 등 도처에서 밤에 출몰하여 시인을 위협한다. 길 한복판에서 이러한 鬼物들이 마음대로 횡행하니 그 세력을 억제하기 힘들고, 무고한 백성들마저 이 때문에 해를 입는 등 그 형세가 점차 광폭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흙이 땅귀신을 두렵게 하는 동시에 천신과도 통하는 칼, 광채가 빛나는 四寅刀로 스스로를 방어하자, 사악한 귀물들은 저절로 쫓겨가게 된다. 신흙이 가진 사인도의 精髓는 용이 되고 劍氣는 무지개가 되어, 하늘을 뚫고 올라가 북두성을 가로질러 紫微宮 별자리까지 뻗쳐오른다. 신흙은 이 사인도와 出仕를 함께 하다가, 후일 黃帝 때의 신선 廣成子가 道를 공부했던 空同山(筭頭山)⁷⁾에서 사인도를 지니고 은거하겠다고 한다. 이는 鬼物들을 물리치는 귀중한 神物인 사인도의 가치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 칼과 평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신흙의 사인도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다.

신흙의 〈사인도가〉에 나타난 온갖 요물과 악수들은 곧 당시 계축옥사를 주도한 大北派를 지칭한다. 신흙은 은연중에 〈사인도가〉 속에서 인검을 사용하여 괴물 같은 간신들을 처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검이 단순한 벽사검적인 상징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뒤에 언급할 義劍적인 상징성도 아울러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辟邪劍으로서의 인검 사용의 실례를 보여주는 작품인, 1758년(영조 34)에 지어진 俞彦鎬(1730~1796)의 〈三寅劍贊〉⁸⁾은 벽사용 신물로서의 인검에 관한 믿기 어려운 일화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소지한 삼인검을

6) 『臞齋集』 卷5 〈處士滄泉申公墓誌銘〉.

7) 『元和郡縣志』 卷3 『管縣』 4 ‘平高縣’.

8) 자료4 - 『燕石』 冊4 〈三寅劍贊〉.

아무렇게나 방치했던 유언호는, 비몽사몽간에 귀신을 만나자 인검을 사용해서 이를 격퇴하고, 새삼스럽게 인검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어 이를 수리하고 인검에 대한 贊을 짓는다.

유언호의 집에는 길이 1척 남짓인 삼인검이 있었는데, 자루는 호랑이 뼈로, 칼집은 어피로 만들어져 있었다. 寅年·寅月·寅日에 만들어진 삼인검은 세상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능히 상서롭지 못한 것을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辟邪劍이다. 이러한 인검은 유언호의 무관심 때문에 오랫동안 솥돌질하지 않아서 칼날이 무디어진 채로 벽 사이 먼지구덩이 속에 수년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겨울밤, 잠을 자고 있던 유언호의 이불 속으로 험상궂은 귀신이 갑자기 기어들어온다. 놀란 유언호는 방구석에 있던 인검을 찾아서 귀신에게 집어던지는데, 이마에 검이 꽂힌 귀신은 땅에 엎어져서 울부짖다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악몽에서 깨어난 유언호는 인검의 벽사검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대장장이에게 명하여 인검을 수리한다. 인검의 날에서 녹이 벗겨지자, 마치 연못에서 개구리밥이 헤쳐지면서 물에 햇빛이 반사되듯 검광이 번쩍 빛났다. 검을 수리하고 난 유언호는 贊에서 인검 속에 三陽의 精氣가 엉기고 四氣의 근원이 모여서 그 무늬가 아름다운 유성처럼 이어지고, 그 날카로움이 나는 새를 베고 견고한 옥돌을 자르며, 그 사용함이 능히 소인배로 하여금 간담을 섬찟하게 하고 귀신과 도깨비가 그 몸을 도망가게 한다고 서술한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神物인 인검은 반드시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데, 사람은 진실로 時運에 따라 드러날 수도 있으며 사물도 또한 그러하다. 인검이 진실로 불우한 세상을 당하게 되면 빛이 잠겨 섬광을 감추고, 먼지구덩이 사이에 떨어져서 무늬도 거칠어지고 녹도 생겨나서 스스로 그 위엄과 신비함을 떨치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한 줄기의 純剛한 기가 인검에 맺혀서 흩어지지도 않고, 가운데에서 스스로 빙글빙글 돌다가 흑 붉은 광휘가 올라가서 두성의 靄도를 쏘기도 하고, 흑은 침실에 의지해서 요귀들을 물리치기도 하니, 이러한 인검은 백정의 칼이나 사냥꾼의 칼처럼 무디고 신령스럽지도 않아서 끝내 묻혀버려 소문도

들리지 않게 되는 칼들과는 결코 비교될 수 없다. 자취는 감춰진 부분도 있고 드러난 부분도 있으며 道는 굽힘과 펴짐이 있으니, 인검을 잘 보관할 것인지 때에 맞게 쓸 것인지는 오직 하늘의 명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유언하는 그의 〈삼인검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인검으로 귀신을 퇴치하고 나서 지은 〈삼인검찬〉은 소인배와 요물을 베는 인검의 성격을 제시하면서, 인검과 인검의 소유자를 동일시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하늘의 명에 따라 쓰이는 칼인 인검은, 역시 하늘의 명을 받아 인검을 잡고서 악을 베는 선비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인검에 대한 이러한 記述은 신희의 〈사인도가〉와 마찬가지로 곧 인검이 벽사적인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뒤에 설명할 義劔적인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2) 士大夫의 義物, 義劔

『東文選』에 실린 고려시대 釋息影菴(?~?)의 〈劔說〉에서 주인공인 道人은 선비의 외모와 武人의 服飾을 한 사나이, 즉 文武를 겸전한 道家의 대표적 인물인 莊周(莊子)의 방문을 받는다. 도인은 天子劔·諸侯劔·庶人劔⁹⁾을 사랑하는 장주에게, 장주의 검이 전부 ‘검의 말단[劔之末]’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도인 자신의 네 자루 검인 如來劔·菩薩劔·祖師劔·道者劔에 대해 설명한다.

道人の 네 자루 검 중 道者劔은 ‘근본 중의 근본[本之本]’인 검으로, 검을 사용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格이 차이난다. 여기서의 ‘道者’

9) 天子劔·諸侯劔·庶人劔: 『莊子』 「說劔」에서 언급되었다. 천자검은 중국 전체를 칼 자체로 삼아 음양오행에 입각하여 제후를 바로잡고 천하를 굴복하게 하는 검, 제후검은 다양한 士들을 칼 자체로 삼아 하늘에 순응하고 계절을 따르며 백성의 뜻대로 사방을 편안하게 하여 君命을 따르지 않을 자가 없게 하는 검이며, 서인검은 대결을 위주로 하는 협객의 검이다.

는 절에서 아직 중이 되지 아니한 나이 어린 行者를 지칭하는 단어로, 불교의 한 종파를 열었거나 그 종파의 법맥을 이은 禪僧을 이르는 ‘祖師’와 成佛의 誓願을 일으켜 구도의 길로 나아가는 ‘菩薩’, 그리고 진리의 體現者이며 涅槃에 다다른 자인 ‘如來’와 마찬가지로 불교적인 색채가 짙은 용어이다. 도자검을 운용하는 도인은 이 글의 저자인 석식영암이 승려라는 점에서, 그리고 여래검·보살검·조사검 등 불교적 용어를 사용한 검을 소지함으로 인해 얼핏 보기에 불교의 도를 수행하는 구도자로 단정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도인의 道는 ‘도를 떠나지 않은 자가 한 번 쓰면 천하의 사람을 다 죽이는 것도 자기에게 달렸고, 천하의 사람을 다 살리는 것도 또한 자기에게 달렸소’라는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교적 道 개념에 국한되지 않는 광의적인 治道에까지 그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

그런데 도자검에 관한 설명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삼인에 만들었고[三寅所鑄]’라는 대목이다. 도인의 검 중 가장 근본이 되는 도자검이 곧 삼인검이라는 점은, 인검의 기본적 성격이 곧 도자검임을 드러내준다. 이것은 이제까지 단순히 벽사적 의미로만 인식되어오던 인검의 개념을 확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軟劔이나 剛劔이나, 短劔이나 長劔이나에 상관없이, 어느 누가 사용하든지간에 사용자가 道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면 그 칼은 도자검이 되는 것이다. 사용자가 추구하는 올바른 도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기물인 도자검의 개념은, 바로 寅劔에 그대로 적용된다.

道者劔적인 인검개념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문학작품 속에서 忠臣으로서의 시적자아를 표현한 士大夫의 義物인 ‘義劔’으로 구체화된다. 寅劔의 寅을 상징하는 호랑이는 五行상 義를 의미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인검은 곧 ‘義劔’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의검’이라는 용어는 본고에서 사대부의 의물로서의 인검개념을 규정하기 위해 南冥 曹植(1501~1572)이 소지하고 다녔던 敬義劔의 명칭을 참고하여 사용한 것이다. ‘안으로 밝히는 것은 敬이요, 밖으로 결단하는 것은 義이다[內明者敬 外斷者義]’¹⁰⁾라는 경의검의

劍銘은 '義劍'과 뒤에 언급할 선비의 修身物인 '修養劍'의 성격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내준다. 敬으로서 내면의 정신세계를 밝히고, 義로서 외부의 萬事를 決斷한다는 의지를 劍銘에 표명한 남명의 검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선비의 칼로서 그 의의를 지닌다. 비록 남명의 경의검이 인검은 아니었지만, 경의검이라는 명칭 속에 녹아있는 '의검'과 '수양검'의 개념은 바로 인검의 기본 개념을 고찰하는 데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俞莘煥(1801~1859)의 <金渭師(尙鉉)家藏古劍銘>¹¹⁾ 중에서도 앞서 논한 남명의 검명과 마찬가지로 '義劍'의 개념이 나타난다. '劍이어! 안으로 밝히는 것은 지이며, 밖으로 강직하게 하는 것은 義이다[劍乎 內明者智也 外剛者義也]'라는 유신환의 검명도 역시 검이라는 기물이 곧 義를 표출하는 義劍이 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이러한 의검의 '義'는 곧 사대부가 지향하는 정당함 그 자체이다. 밖으로 결단하고 강직하게 하는 義는, 朱子の "義는 마음에 있을 때에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으니, 사물이 와서 그것에 닿으면 곧 두 조각으로 나누어진다"¹²⁾ 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劍과 동일한 속성을 지닌다. 사대부의 義는 곧 劍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그 義는 인검에 관한 문학작품 속에서 인검 그 자체를 의미하는 義劍으로 투영되는 것이다.

義劍으로서의 인검 실체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신흘과 더불어 漢文四大家의 하나로 추앙받는 張維(1587~1638)의 <三寅劍賦>¹³⁾를 주목해보도록 하자. 장유의 <三寅劍賦>에 나타난 寅劍은 채 한 자[尺] 정도 안되는 단검이지만, 장유의 설명에 의해 인검으로서의 실상과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 세 개의 양이 모여 사계절 중 첫 번째인 寅은 바로 봄의 기운이며, 陽이 굳세고 밝아서 으뜸으로 대우받고 만물이 비롯되게 하는

仁을 그 德으로 한다. 十二支 중에서는 호랑이에 해당되는 寅은 위엄과 용맹이 넘치는 백수의 왕으로서 여우나 들개 따위의 惡獸를 한 입에 박살낸다. 寅月·寅日·寅時의 기운이 모두 이 寅이라는 辰에 모여들게 되면, 인검이 그 정기를 듬뿍 받아 신통력을 온전히 갖추게 된다. 이 칼을 한 번 쓰게 되면 사악한 마귀가 쫓겨가고 요망한 기운이 삼시간에 없어지며, 온갖 도깨비들이 감히 접근도 못한다. 인검의 칼빛은 상하 사방으로 뻗어나가서, 사용하는 선비의 몸을 지켜 간사함을 물리치고 요망한 자의 허리와 머리를 삼대 자르듯 베어버리는 義로운 기물로서의 역할을 다하므로, 인검이 잘 간수되어서 제때에 사용되면 곧 완악한 간신과 악인을 물리치는 義劍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의 인검은 <劍說>에서 언급되었던 道者劍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도인이 쓰면 샅된 것을 물리치는 神物인 佛家の 金剛杵[金剛之寶]¹⁴⁾와 玄天上帝인 신선 眞武¹⁵⁾· 晉나라 도사 旌陽¹⁶⁾· 唐나라의 대표적인 신인 呂洞賓¹⁷⁾의 검과 王殷의 故事¹⁸⁾에서 나오는 腦後의 탄환과도 같은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 즉 辟邪劍¹⁹⁾이 되고, 惡臣 張禹를 베어서 처단하려

14) 金剛杵 : 승려들이 불도를 닦을 때에 쓰는 도구. 본래 인도 무기의 하나로, 인간 번뇌를 부숴버리는 菩提心을 상징한다.
 15) 眞武 : 淨樂國王의 태자로 玄天大聖이라고도 한다. 원래 玄武였으나 1012년 10월에 宋나라 왕실의 趙玄郎이 그의 시호를 진무로 바꾸었다. 진무는 동해를 건너다 天神을 만나 보검을 수여받고 武當山(湖北省 太和山)에 들어가 42년간 수련하여 白日昇天하였으며, 상제의 명을 받들어 마왕을 진압했다(『湖廣通志』 卷74 「仙釋志」, 「襄陽府」).
 16) 旌陽 : 정양은 晉나라 許遜으로 온 가족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는 고사로 유명하다. 어느 날 길가에서 한 소년을 보고는 이무기의 精인데 곧 黃牛로 변할 것이라고 하고, 얼마 뒤에 자신이 黑牛로 변해 그 황우를 쫓아가서 문인에게 황우를 칼로 베어 죽이도록 하였다(『江西通志』 卷103 「山澤」, 「南昌府」).
 17) 呂洞賓 : 唐의 유명한 신선 呂巖. 字 洞賓, 號 純陽. 중국 도교의 유파인 全真敎의 祖師이며, 항상 純陽巾을 쓰고 검을 등에 지고 있는 儒者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스스로 煩惱와 貪嗔, 色慾을 끊는 3劍을 지녔다고 자부했다(『能改齋漫錄』 卷18 「神仙鬼怪」).
 18) 王殷의 故事 : 五代 後晉때 王殷이 杜重威의 화살을 뺨에 맞았는데 머리 뒤로 뚫고나오자, 이 화살을 바로 뽑아서 도로 활을 쏘았다는 고사로서 기사회생의 수단을 말한다(『舊五代史』 卷124 「列傳」, 4).

10) 기타1 - 『南冥集』 卷1 <佩劍銘>.

11) 기타2 - 『鳳棲集』 卷3 <金渭師(尙鉉)家藏古劍銘>.

12) 『北溪字義』 卷上 <仁義禮智信> : 文公謂義之在心 如利刃 然物來觸之 便成兩片.

13) 자료6 - 『谿谷集』 卷1 <三寅劍賦>.

했던 漢나라의 충신 朱雲²⁰⁾과 같은 인물이 청해서 쓰면 간신을 베는 義物인 상방참마검(尙方之斬馬), 즉 義劍이 되며, 烈士가 휘두르면 燕나라 태자의 명으로 진시황을 척살하려 했던 衛나라 劍士 荊軻와 배를 습격한 두 마리 교룡의 목을 베는 楚나라 劍士 伏飛²¹⁾의 검처럼 俠氣로 長江의 물결을 잠재우고 蛟龍을 베는 任俠의 劍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검을 소유한 장유는, 자신의 검이 차라리 豫章의 豐城縣에 묻혀있던 楚나라의 유명한 보검인 龍淵劍²²⁾처럼 흙 속에 묻혀서 자줏빛 劍氣를 斗星과 牛星 사이에 내쫓지언정, 자신이 직접 속세 사람들의 무딘 검과 날카로운 칼끝을 서로 다투며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안달하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 장유의 인검은 그의 마음속에 간직된 義氣의 상징이 된다. 그는 이 검에 원양승사창정검(元陽勝邪蒼精之劍: 양기를 근본으로 사악함을 이기는 푸른 정기의 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온종일 차고 다니며 몸에서 떼지 않는다.²³⁾

- 21) 장유가 <삼인검부>에서 검을 사용하는 도가적인 신선들을 열거함을 통해 인검이 지니는 벽사검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점은, 일상 속에서 『莊子』를 즐겨 읽었던 그의 독서취향과도 연관된다. 장유가 그의 인검에 붙인 '원양승사창정검'이라는 검의 이름도 도가적 선인이었던 여동빈의 純陽劍 개념을 의식하고 지은 것이다.
- 22) 朱雲: 漢 成帝 때 安昌侯 張禹가 전횡을 일삼자, 주운이 성제에게 간신인 장유를 베도록 참마검을 빌려달라고 청했다. 성제가 노하여 무관들에게 그를 끌어내도록 하자, 주운이 끌려나가자 않으려고 난간을 잡고 버티다가 결국 난간이 부러지게 되었다. 후후 성제는 난간을 교체하지 않고 수리하여 직언을 한 충성스러운 신하의 징표로 삼았다(『前漢書』 卷67).
- 23) 伏飛: 依非. 楚나라 劍士로 일찍이 양자강을 건너다가 두 마리의 교룡이 배를 습격하자 그 목을 베고 풍파를 잠잠하게 하였다(『淮南子』 卷12 「道應訓」).
- 24) 龍淵劍: 楚나라의 보검. 龍泉劍과 동일하다. 晉나라 武帝 때 斗星과 牛星 사이에 紫氣가 감돌자 張華가 雷煥에게 부탁하여 豫章의 豐城縣에서 龍泉과 太阿 두 검을 파내었다고 한다(『晉書』 卷36 「列傳」, 6 「張華」).
- 25) 이 <삼인검부>의 序에서 보이는 '내가 그 검을 사랑하여 허리에 차고는[余故愛而服之]'라는 부분과 賦의 끝에서 보이는 '온종일 차고 다니며 몸에서 떼지 않는도다[朝夕服之未嘗離身]'라는 구절은 기존의 인검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인검의 실제 휴대 여부를 규명해주는 귀중한 증거가 된다. 장유의 <삼인검부> 운자를 차용해서 지은 趙龜命의 <四寅刀賦> 서문에도 '내가 바야흐로 사인도를 차고 다녔는데[余方佩四寅刀]'라는 구절이 보인다.

당시대에 있어서 인검이라는 기물은 사대부들에게 결코 생소하거나 거리감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사대부에게 있어서 평소에 휴대하고 다닐 만큼 각별한 기물이기도 했던 인검은 단순한 벽사용 신물인 벽사검이라는 이미지만 아니라, 악인을 베는 의물인 의검으로서의 이미지도 동시에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일찍이 장유는 친분이 있던 鄭斗卿(1597~1673)의 시에 대해 體格의 고고함과 雷霆霹靂같은 기상이 드러난다는 칭송을 남겼었는데,²⁴⁾ 정두경이 지은 <三寅劍歌>²⁵⁾에 나타난 인검도 벽사검과 의검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20세 때인 1616년(광해군 8)에 <劍賦>를 지어 武와 劍에 대한 관심을 문학적으로 표현했던 정두경은, 30세였던 1626년(인조 4)에 평안북도 원접사 밑에서 제술에 종사하면서 변방의 정세를 몸소 체험하였고, 1632년(인조 10)부터 2년간 함경도 병마절도사를 보좌하는 北評事가 되어 근무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호방한 武風이 드러나는 작품을 많이 남겼고, 정묘·병자호란을 전후하여 조정에서 국가 방비의 필요성을 누차 역설했다. 그는 향시 『史記』와 『戰國策』의 古今 興亡史와 匈奴 討伐史, 그리고 그 안에 수없이 등장하는 용사와 협객들의 기사를 즐겨 읽었으며, 거거하던 방의 오른쪽 벽에는 '구름을 탄 용과 바람 속의 호랑이 형상[雲龍風虎之狀]'을 그려서 붙이고 왼쪽 벽에는 '장강의 달빛, 태화산의 소나무에 부는 바람소리[長江月色 太華松聲]' 8자를 써 붙여 자신의 기상을 드러냈다고 한다.²⁶⁾

정두경은 평소 문학작품 속에서 劍이라는 소재를 즐겨 사용했는데, <三寅劍歌>에서는 도깨비를 물리치는 벽사검으로서의 인검과 간신을 베어버리는 의검으로서의 인검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정두경은 許侯²⁷⁾가 얻은 칼인

- 24) 『國朝人物考』.
- 25) 자료7 - 『東溟集』 卷11 <三寅劍歌>.
- 26) 『東溟集』 附錄 下, 門人 晉山 姜彬 <東溟先生言行錄>.

삼인검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작할 때 寅年·寅月·寅日을 썼기 때문에 명칭을 삼인검이라고 한다는 점과, 맹호가 산 속에 있으면 짐승들이 떠는 법이기 때문에 그 때에 검을 만든다는 점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 허후의 인검은 용연검처럼 칼집에서 다 나오기 전에도 칼빛이 斗星·牛星과 부딪히고, 칼날을 보고 있노라면 그 눈부신 검광이 연꽃이 핀 듯한 느낌을 준다. 눈서리 같은 칼날빛은 백호를 방불케 하고, 폭풍우 속의 우레와도 같은 번쩍임은 푸른 정기를 가진 용의 변화처럼 보인다. 용의 몸체와 호랑이의 기운이 서로 교착하자, 잠깐 보나 바람과 구름이 흰 벽에서 일어난 듯 벽에 비친 검광이 아른거린다. 이 인검은 온갖 요물들을 쫓아내므로, 허후의 정직함과 쌍벽을 이루는 기물이 된다. 허후가 일찍이 혼란한 조정 속에 있으면서 글을 올려 임금에게 원통함을 호소하고 斬馬劔을 청하여 빌려서 간신을 베고 싶다고 했으니, 허후의 곧은 정기는 자웅을 다룰 수 없을 정도로 타의 모범이 되었었다. 하지만 허후의 장렬한 뜻이 이제 그가 늙어서 제대로 펼칠 수 없게 되자, 그는 인검의 옥칼집을 어루만지며 길게 탄식한다. 세상을 요동치게 하는 커다란 자라와 같은 간신을 단칼에 베어버릴 호랑이 털 모자 쓴 용사를 어찌해야 얻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삼인검가〉 속에서 허후라는 충신의 장렬한 뜻(壯志)이 형상화된 실체인 삼인검이라는 義劔은, 허후가 나이가 들게 되자 옥칼집 속에서 뿔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칼집 속의 인검은 조정에서 자신의 雄志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에 대한 老臣의 울분을 투영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27) 허후는 현종·숙종년간에 영의정을 지낸 許積(1610~1680)이다. 〈三寅劔歌〉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해볼 때, 이 작품은 1672년 허적이 宋時烈的 논척을 받아 영의정에서 명예직에 가까운 領中樞府事로 전임된 시기, 즉 1672년부터 정두경이 사망한 1673년 사이에 지어졌을 확률이 크다.

(3) 君子의 修身物, 修養劔

유언호의 친척인 俞漢雋(1732~1811)은 1762년(영조 38년)에 지은 〈三寅刀銘〉²⁸⁾에서 인검을 칭송하고 있다. 사악함과 뜬 기운을 베어서 동틀녘(味爽)과 이른 아침[平朝]의 仁을 회복하게 하는 검인 인검은, 이 글에서 士大夫인 君子의 정신수양의 상징인 修身物, 즉 '修養劔'으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검명의 序에서는 寅劔의 寅이 곧 敬이며, '이 사악한 마음을 베어버리고 이 뜬 기운을 잘라버리는 것'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敬義劔의 검명을 떠올려보자. '안으로 밝히는 것은 敬이요, 밖으로 결단하는 것은 義이다[內明者敬 外斷者義]'에서의 敬은 修身의 개념이다. 朱子는 "하나에 집중하여 다른 곳에 가지 않는 것을 '敬'이라고 한다"²⁹⁾고 말하였다. 여기서 敬은 움직이지 않는 하나된 마음으로, 군자의 내면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군자의 敬은 곧 작가에 의해 문학 속에서 투영되어 修身의 기물 修養劔인 寅劔으로서 그 실체를 드러낸다. '뜻을 진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며, 자신을 닦을 때'³⁰⁾ 모름지기 사용되는 敬은, 劔에 적용되면 이를 君子의 修身器物인 '修養劔'으로 탈바꿈시켜준다. '단정하고 엄숙한'³¹⁾ 모습, 즉 敬의 모습을 지닌 군자는 인검을 소지함으로써 인해 한층 더 자신을 다잡는 修養을 하게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의 '수양검'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맥락에서 君子의 修身器物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18세기에 훌륭한 문필로 인해 『并世才彥錄』에서 八文章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었던 趙龜命(1693~1737)의 〈四寅刀賦〉³²⁾는 인검이라는 역사적 신물이 가지는 근원적인 의미와, 군자의 기물로서의 수양검인 인검의 성격을

28) 자료8-『自著』卷19 〈三寅刀銘〉.

29) 『北溪字義』卷上 〈敬〉: 文公合而言之曰 主一無適之謂敬.

30) 『北溪字義』卷上 〈敬〉: 誠意正心修身也 須敬.

31) 『北溪字義』卷上 〈敬〉: 整齊嚴肅 敬之容.

32) 자료9-『東谿集』卷12 〈四寅刀賦〉.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이 〈四寅刀賦〉는 인검이 지니는 벽사적 성격의 기본적인 형성원리와 그 작용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조귀명은 四壬寅이 합쳐지는 1722년(경종 2) 정월에 이 칼을 만들었는데, 寅이 상서롭지 못한 것을 물리친다는 속설에 대해 설명하면서 60음을 60甲子에 배정하여 五行으로 나타낸 '納音'과 天干을 八卦에 나누어 배당한 '納甲'의 원리에 입각하여 인검의 벽사적 성격이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寅은 맹호가 되는데 손톱을 늘리고 이를 간다. 壬은 곧 太陰이 되어, 칼날 끝의 차가움을 도와서 이에 꾸미고 차는 것인데 寅月辰을 썼고, 6은 陰의 數를 한껏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조귀명의 사인도는 이보다 월등함을 견줄만한 물건이 없을 만큼 보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 사인도는 요망한 것들이 달아나다 산산이 부서지게 하고, 도깨비가 휘둘러 풀처럼 잘리게 하는 무기로서, 모든 調和를 꾸미는 하늘의 기밀인 天機를 빼앗으니 진실로 회세의 보배가 된다. 그 때문에 조귀명은 뛰어난 慧劍을 소유하여 한 몸에 갈무리하였고 義로써 배며 仁으로써 갈아내니, 칼날이 가리키면 온갖 괴물이 그 넋을 잃고 劍光이 달하면 긴 밤 새벽을 깨뜨릴 정도의 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검의 쓰임은 커서 우주를 막을 수 있고, 그 거두는 것은 작아서 탄환도 들일 수 있다. 여기에서 인검을 義로써 배며 仁으로써 갈아내는 과정 자체가 바로 군자인 조귀명의 수양과정이며, 이를 통해 그의 인검은 修養劍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조귀명의 글은 계속해서 그가 소장한 사인도가 비록 풍성에 묻혀있던 절세의 명검인 龍泉·太阿보다는 못하지만 그 劍氣가 두성과 우성까지 뻗쳐 오르고, 누런 소로 변신한 이무기를 베어죽인 仙人인 旃陽의 검이라고 자랑하기에는 부족하지만 惡獸인 이무기의 간사함을 찍어 누르며 邪魔를 물리치는 벽사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인검을 몸 밖에 패용하는 것은 자신을 관리하기 위함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보호함이 곧 마음의 군주가 명한 것이라고 하여 修養劍으로서의 인검 소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조귀명은 인검을 휘둘

러 검의 견고함과 완전함을 시험해 보고나서, 이 인검이 延津에 빠진 神物³³⁾의 기운과 유형에 짝할 정도의 명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영조가 친히 조귀명의 문집인 『東谿集』의 서문을 써줄 정도로 당대에 文名을 떨쳤던 조귀명은, 사람됨이 淸靜하고 욕심이 없었으며 평생 벼슬을 하지 않은 布衣의 신분으로 내면의 수양에 힘썼다. 〈사인도부〉는 바로 그러한 조귀명이 일생동안 군자의 道를 추구한 자신의 정신수양 태도를 인검에 투영한 문학작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3. 結 論

丁卯胡亂(1627)과 丙子胡亂(1636~1637)을 거치게 되면서 17세기 朝鮮 士大夫의 觀念 속에는 '武'에 대한 認識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으며, 이 때문에 그들의 문학작품 속에서 전란 체험에 대한 반영 양상의 한 형태로 劍이라는 소재에 대한 언급이 드러나게 된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는 조선 문화가 전반적으로 흥성하면서 '武'의 문화도 아울러 번성하게 되었다. 국가의 주도하에 『武藝新譜』와 『武藝圖譜通志』 등 여러 兵仗器와 劍의 사용법을 수록한 武書들이 편찬되었으며, 서울에 근거지를 둔 京華世族을 위시한 士大夫들의 고급 취향인 書畫·古董 수집 경향이 대두되면서 그 일환으로 刀劍 수집 및 감식이 하나의 문화로 등장하게 된다. 이와 같이 당시에 있어서 전반적인 추세였던 武風의 興起에 발맞추어 당시대의

33) 張華의 부탁을 받은 雷煥이 豫章의 豐城縣에서 龍泉과 太阿 두 검을 파내고 나서 장화가 용천검을, 뇌환이 태아검을 보관하였다. 장화가 伏誅되면서 용천검은 없어졌고, 뇌환이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 雷華가 太阿劍을 차고 다녔다. 어느날 뇌환이 延平津을 지날 때 홀연히 검이 그의 허리춤에서 튀어나와 물 속으로 들어갔다. 사람을 시켜 잠수하여 찾아 보게 하니, 검이 빠진 자리에 몇 길 되는 용 두 마리가 있었다고 한다(『晉書』 卷36 「列傳」 6 「張華」).

문학작품에서도 ‘武’를 상징하는 劔이라는 소재가 자주 등장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寅劔이라는 특징적인 器物이 사대부들에게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본고를 통해 분석했던 인검을 주제로 한 한문학 작품의 목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작품들이 대부분 17~18세기에 창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 속에서 인검은 辟邪劔, 義劔, 修養劔이라는 문학적 상징성을 지닌다.

조선의 寅劔은 조선조 士大夫의 관념 속에 깃들어있던 文武兼全의 정신을 상징하는 귀중한 한국의 문화유산이다. 사대부에게 있어서 寅劔은 辟邪劔, 義劔, 修養劔의 성격을 아울러 포함하는 상징적인 器物로 인식되었으며, 이는 사대부가 남긴 한문학 텍스트 안에서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한문학 속에서 인검은 辟邪用 神物인 辟邪劔과, 간신과 악인을 베는 의물인 사대부의 義劔으로서의 이미지를 문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선비의 義氣 그 자체로서, 혹은 정신수양의 상징물인 修養劔으로서 특징적인 象徵性을 지니고 있다.

<표 1> 寅劔文獻目錄

目錄	作者	生沒年	作品名	作成年代	象徵性
자료1	宋文欽	1710~1752	〈三寅七星劔〉	18C	辟邪劔
자료2	趙持謙	1639~1685	〈感懷〉	17C	辟邪劔
자료3	申欽	1566~1628	〈四寅刀歌〉	17C	辟邪劔, 義劔
자료4	俞彦鎬	1730~1796	〈三寅劔贊〉	18C	辟邪劔, 義劔
자료5	釋息影菴	?~?	〈劔說〉	14C(高麗)	義劔
자료6	張維	1587~1638	〈三寅劔賦〉	17C	辟邪劔, 義劔
자료7	鄭斗卿	1597~1673	〈三寅劔歌〉	17C	辟邪劔, 義劔
자료8	俞漢雋	1732~1811	〈三寅刀銘〉	18~19C	修養劔
자료9	趙龜命	1693~1737	〈四寅刀賦〉	18C	辟邪劔, 修養劔
기타1	曹植	1501~1572	〈佩劔銘〉	16C	義劔, 修養劔
기타2	俞莘煥	1801~1859	〈金渭師(尙鉉)家藏古劔銘〉	19C	義劔, 修養劔

인검이라는 유물에 대해 사대부들이 남긴 한문학 작품과, 그들이 소장했던 현존유물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은 조선의 도검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조선조의 사대부들은 기본적으로 君子가 되기 위한 정신적 수양을 상징하는 수양검으로서 인검을 인식하였고, 이러한 인검은 사대부의 義를 구현하게 하는 義劔과 요물을 쫓아내는 辟邪劔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던 것이다. 이에 대한 규명은 곧 조선조 인검에 대한 고찰뿐만 아니라 사대부들이 향유했던 조선 도검문화의 특징을 통찰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단초가 된다.

조선시대 한문학 텍스트 속에서 형상화된 인검의 文學的 象徵性, 즉 辟邪劔·義劔·修養劔은 조선조 사대부들이 평소 인검에 대해서 생각했던 관념들이다. 이러한 관념들은 다만 인검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대부들이 七星劔이나 雲劔 등 다른 조선시대 검에 대해 가졌던 정신적 인식 태도로도 유추 해석될 수 있다. 인검과 기타 조선시대 도검에 대한 비교연구는 본고에서 다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원고투고일 : 2007. 2. 23, 심사완료일 : 2007. 3. 20)

주제어 : 인검, 삼인검, 사인검, 벽사검, 의검

<附錄>

寅劍文獻資料

• 자료1 - 宋文欽(1710~1752) : 『閒靜堂集』 卷7 <三寅七星劍>

日月贊剛	일월이 陽剛을 도우니
星文昭光	복두칠성 무너 밝게 비치네
操以必割	잡으면 반드시 베며
柔道是絶	柔도로 이에 끊어버리네

• 자료2 - 趙持謙(1639~1685) : 『迂齋集』 卷2 <感懷>

塞外歸來鬢已殘	국경 밖에서 돌아오니 귀밑머리 이미 쇠었고
秋霜又落蓼花灘	가을서리 또 蓼花灘에 떨어지네
書搜二酉螢囊弊	二酉山の 책 찾으니 반딧불주머니 해질 정도이고
劍倚三寅鬼膽寒	삼인검에 의지하니 귀신의 마음 떨게하네
少日雲雷曾有志	젊은 날 구름과 우레처럼 일찍이 雄志 있었으나
頻年風浪太無端	노년의 풍랑은 너무도 종잡을 수 없더라
愁來乍向虛簷睡	수심이 밀려와 얼핏 빈 집에서 낮잠자면서
夢裏猶吟行路難	꿈속에서는 오히려 행로난을 읊는구나.

• 자료3 - 申欽(1566~1628) : 『象村集』 卷7 <四寅刀歌>

俗傳寅年月日時打成者曰四寅劍 能辟鬼 甲寅春正 東陽爲余鑄成.

세속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寅年·寅月·寅日·寅時에 두드려 제조한 칼을 四寅劍이라 한다. 이것이 잡귀를 물리친다고 하는 데, 甲寅年(1614: 광해군 6) 정월에 東陽尉가 나를 위해 이 칼을 만들었다.

林有魍兮山有夔	숲에는 魍가 있고 산에는 夔가 있으며
陸有虎兮水有螭	물에는 범이 있고 물에는 이무기가 있어
夜而行兮晝而伏	밤이면 나와 다니고 낮이면 숨어있으면서
攬余髒兮嚼余足	나의 옷깃 끌어잡고 나의 발을 물어뜯도다

橫中途兮不可制	길 한복판에서 횡행하니 억제할 수 없고
爲民害兮勢漸猘	백성을 침해하니 형세 점점 포악하네
我有刀兮名四寅	나에게 四寅이라 이름하는 칼 있어
讐地祇兮通天神	땅귀신을 두렵게 하며 천신과도 통하는데
白銀粧兮沈香飾	백은으로 단장하고 침향으로 꾸몄으며
光潑潑兮霜花色	광채가 서리빛처럼 번쩍번쩍하네
防余身兮奚所懼	내 몸을 방어하는데 두려울게 무엇인고
邪自辟兮罔余迕	邪鬼 저절로 쫓겨가서 나를 범하지 못하리
精爲龍兮氣爲虹	精髓는 용이 되고 氣는 무지개되어
橫北斗兮亘紫宮	복두성을 가로질러 자미궁까지 뻗치나니
行與藏兮惟余同	나가거나 감추어지기를 오직 나와 함께 하다가
歲將暮兮倚空同	나이 장차 늙어지면 空同山에 의지하리

• 자료4 - 俞彥鎬(1730~1796) : 『燕石』 冊4 <三寅劍贊>

家有一古劍 長纒容尺 槩以虎骨 鞘以魚皮 號三寅劍 盖成於寅年月日者也 世傳三寅劍 能揮呵不祥 而是劍也 久未發硯 芒刃剗敵 不足以周防 委諸壁間堆塵 有年矣 今冬夢有鬼狀 極醜醜 直犯臥內 亟以是劍擲之 中其額 仆地啼號 因忽不見 覺來猶餘悸也 乃知神物有時沉晦 而亦自隨機效靈 莫能遏也 於是命工淬濯 悉去其鱗皴 如萍開見水 晶光燁然也 遂爲文以贊之曰 劍兮劍兮 凝三陽之精 鍾四氣之元 其文則綺流星連 其利則斷浮翮截堅珉 其爲用則能使佞孽破其膽 而鬼魅遁其身 盖神物不能自運 必待乎人 人固隨時而顯晦 物亦爲然 故當其不遇也 潛光匿耀 零落塵埃之間 綉澁苔生 無以自奮其威神 然惟一段純剛之氣 鬱而不散 中自輪困 或騰紫輝而射斗躔 或憑宵寐而攘妖姦 夫豈若屠者之刃 獵夫之鋌 刃鈍不靈 終沒沒以無聞 噫 劍兮人兮 跡有隱見 道有屈伸 善藏時用 惟聽命于天

집에 한 자루 옛날 칼이 있는 데, 길이는 겨우 1척 남짓이고 자루는 호랑이뼈로, 칼집은 어피로 하였다. 삼인검이라 부르는 데, 寅年·寅月·寅日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삼인검은 능히 상서롭지 못한 것을 범접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으니, 바로 이 검을 말함이다. 오랫동안 숫돌질하지 않았기에 칼날이 무디어져서 귀신을 두루 방어하기에 부족하여, 벽 사이

먼지구덩이 속에 버려둔지 여러 해가 되었다. 올 겨울 꿈에 매우 험상궂은 귀신 형상이 나타났는 데 바로 이불 속으로 침범해오거늘, 얼른 이 검을 집어던지자 귀신의 이마에 적중하니, 귀신이 땅에 엎어져 울부짖다가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다. 잠에서 깨어났는 데도 오히려 가슴이 떨렸다. 이에 신물이 때로는 어둠에 잠길 때도 있지만, 또한 스스로 天機를 따라서 신령스러움을 나타내면 귀신도 검을 막아낼 수 없음을 알았다. 이에 대장장이에게 명하여 담금질하여 씻어 내어 그 녹슨 꺾데기를 모두 없애버리게 하니, 개구리밥이 열려서 물이 보이자 광채가 번쩍이는 것 같았다. 드디어 글을 지어 贊하여 말하길,

‘검이여! 검이여! 三陽의 精氣가 엉기고 四氣의 근원이 모이니, 그 무늬가 아름다운 유성처럼 이어지고, 그 날카로움이 나는 새를 베고 견고한 옥돌을 자르며, 그 사용함이 능히 소인배로 하여금 간담을 섬찝하게 하고 귀신과 도깨비가 그 몸을 도망가게 한다. 대개 神物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반드시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데, 사람은 진실로 時運에 따라 드러날 수도 있으며 사물도 또한 그러하다. 진실로 불우한 세상을 당하게 되면 빛이 잠겨 섬광을 감추고, 먼지구덩이 사이에 떨어져서 무늬도 거칠어지고 녹도 생겨나서 스스로 그 위엄과 신비함을 떨치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한 줄기의 純剛한 기가 맺혀서 흩어지지 않고, 가운데에서 스스로 빙글빙글 돌다가 흑 붉은 광휘가 올라가서 두성의 궤도를 쏘기도 하고, 혹은 침실에 의지해서 요귀들을 물리치기도 하니, 어찌 백정의 칼이나 사냥꾼의 칼처럼 무디고 신령스럽지도 않아서, 끝내 묻혀버려 소문도 들리지 않게 되는 칼과 같겠는가? 아! 검이여! 사람이여! 자취는 감춰진 부분도 있고 드러난 부분도 있으며 道는 굽힘과 펴짐이 있으니, 잘 보관할 것인지 때에 맞게 쓸 것인지는 오직 하늘의 명을 들어야 하리라.’

● 자료5 - 釋息影菴(?~?) : 『東文選』 卷97 <劍說>

…… 道者劍者 握起劍云 卽此是已 鐵刃銀裝 三寅所鑄 鍔二曜九星 以文其鍔 鏤二龍 以飾其口 赤木之把 青絲之緘 長不越一尺 闊不盈一寸 …… 道者劍 本之本 …… 此劍時大時小時柔時剛 如來用之 如來劍 菩薩用之 菩薩劍 祖師用之 祖師劍 天子與諸侯與至庶人用之 皆其劍也 而不離乎道者 一用 死却天下人由己也 活却天下人亦由己也 …….

道者劍이란 것은 握起劍이라 이르는 데, 바로 이것ियो. 쇠 칼날에 銀 장식을 했는 데, 三寅에 만들었고, 二曜·九星을 새겨서 칼날에 무늬를 놓았으며, 두 마리 龍을 아로새겨 그 칼집 입구를 꾸몄고, 손잡이는 赤木으로, 끈은 푸른 실로 하되, 길이가 한 자를 넘지 않고 넓이가 한 치에 차지 않으며 …… 道者劍은 근본 중의 근본이며 …… 이 검은 때로 크고 때로 작고, 때로 부드럽고 때로 강하며, 여래가 쓰면 如來劍, 보살이 쓰면 菩薩劍, 조사가 쓰면 祖師劍, 천자·제후 내지 서인이 쓰면 다 그의 검인데, 道를 떠나지 않은 자가 한 번 쓰면 천하의 사람을 다 죽이는 것도 자기에게 달렸고, 천하의 사람을 다 살리는 것도 또한 자기에게 달렸소.

● 자료6 - 張維(1587~1638) : 『谿谷集』 卷1 <三寅劍賦>

余偶得三寅短鍔 蓋鑄於寅年月日者也 世傳三寅之劍 能辟除不祥 余故愛而服之 爲賦以贊之

내가 우연히 三寅 단검을 얻었는 데, 삼인이라 함은 대체로 인년·인월·인일에 그 검이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세상에 전해 오는 말로는 삼인검은 상스럽지 못한 것들을 물리쳐 준다고 하기에 내가 그 검을 사랑하여 허리에 차고는 賦를 지어 기리는 바이다.

我有寶劍
成於三寅
長未滿尺
晶光燦然
夫寅者
三陽之會
四氣之元
陽剛而明
元首而尊
物所資始
其德則仁
十二之屬

나의 이 보검
三寅에 만들어졌도다
길이는 채 한 자가 못 되지만
맑은 빛 눈이 부시도다
대저 寅은
세 개의 陽이 모여
사계절 중 첫 번째요
陽이 굳세고 밝아서
으뜸으로 대우받고
만물이 비롯되니
仁이 바로 그 德이라
十二支 中에서는

寔爲虎焉	호랑이에 해당되니
奮其威猛	위엄과 용맹을 떨쳐
百獸所君	백수의 왕이 되어
孽狐野豕	여우나 들개 따윈
糜之一齷	한 입에 박살나네
維歲月日	해와 달과 날이 모두
萃于茲辰	이 辰에 모여들어
劍鍾其精	칼이 그 정기 듬뿍 받고
而全其神	신통력을 온전히 하니
故其爲用也	그러므로 칼을 한 번 쓰노라면
攝魔驅邪	사마가 쫓겨가고
揮霍妖昏	요망한 기운 삼시간에 없어지며
魑魅猖狂	장난치는 도깨비들
莫敢近旃	감히 접근 못하도다
亦可光芒六合	상하 사방 뻗치는 칼빛
衛身攘姦	몸 지켜 간사함 물리치고
妖要亂領	요망한 자의 허리와 머리
翦若芟菅	삼대 자르듯 베어 버리니
善藏時用	잘 간수해서 제때에 쓰면
前無堅頑	앞에 완악한 자 나오지 못하리라
然則是器也	그러니 이 물건을
道人御之	도인이 쓰면
則爲金剛之寶眞武之仗旌陽洞賓	금강저와 진무·정양·여동빈의 검,
腦後之丸	뇌후의 탄환되고
忠臣請之	충신이 청하면
則爲尙方之斬馬而佞孽膽寒	상방참마검이 되어 간신의 간담 서늘케 하네
烈士奮之	열사가 휘두르면
則爲荊飛之擒蛟而長江戢瀾	荊軻와 依飛처럼 교룡잡고 장강 물결 잠재우리니
寧爲土中之龍淵	차라리 龍淵劍마냥 흙 속에 묻혀
衝紫氣於星躔	자줏빛 劍氣를 별자리에 내솟지언정
不願與鉛刀爭鋒	무딘 검과 날카로운 칼끝을 서로 다투며

覬俗子之見珍	세상의 인정 받으려고 안달하지 않으리라
遂號之曰元陽勝邪蒼精之劍	이에 元陽勝邪蒼精劍이라 이름하고
朝夕服之未嘗離身	온종일 차고다니며 몸에서 떼지 않는도다

● 자료7 - 鄭斗卿(1597~1673) : 『東溟集』 卷11 <三寅劍歌>

吾聞	내가 들으니
三寅之劍能辟邪	삼인검은 능히 邪氣를 막는다 했는데
許侯得之信奇絶	許侯가 얻은 칼이 진실로 기이하고 절세에 뛰어나네
借問如何號三寅	묻노니 왜 삼인검인가
鑄用寅年與月日	만들 때 寅年·寅月·寅日을 썼기 때문이라네
猛虎在山百獸恐	맹호가 산 속에 있으면 짐승들이 떠는 법
鑄劍故用寅年月	그래서 寅年·寅月에 검을 만든다네
未出匣中斗牛衝	칼집에서 다 나오기 전에도 칼빛이 斗星·牛星과 부딪히니
看來鏗開芙蓉	칼날을 보고 있노라면 연꽃이 핀 듯
雪霜彷彿白額虎	눈서리 같은 칼날빛은 백호를 방불케 하고
雷雨變化蒼精龍	雷雨같은 번쩍임은 푸른 정기가진 용의 변화러라
龍身虎氣相交錯	용의 몸체 호랑이의 氣가 서로 교착하여
倏見風雲起素壁	잠깐 보니 風雲이 흰 벽에서 일어난 듯
魑魅魍魎皆辟易	도깨비들 모두 쫓아내기 쉬우니
許侯正直眞相敵	許侯의 정직함이 진실로 대적할 만 하구나
許侯曾在昏朝中	許侯가 일찍이 혼란한 조정 속에 있으면서
上書叫闔蓬萊宮	글을 올려 蓬萊宮에 원통함을 호소하였네
請借斬馬斬佞臣	청컨대 참마검 빌려 간신을 베고 싶다 했으니
直氣豈不爭雌雄	곧은 정기가 어찌 자용을 다룰 수 있으랴?
壯志如今成皓首	장렬한 뜻이 이제는 늙고 말았으니
摩挲玉匣長歎久	옥칼집을 어루만지며 길게 탄식하노라
東海三山動巨鼇	동해의 삼신산을 커다란 자라가 요동치게 하니
安得猛士頭虎毛	어찌해야 호랑이털 모자쓴 용사 얻어서 (一作持此刀)
一爲斬斷清風濤	맑은 바람 이는 파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으랴

● 자료8 - 俞漢雋(1732~1811) : 『自著』 卷19 〈三寅刀銘〉

三寅刀者 寅年寅月寅日作刀者 斬截割斷之用也 寅在一日之中則味爽也 人之心湛然故伊尹曰味爽丕顯 又平明也 人之氣浩然 故孟子曰 平朝之氣 及至於辰卯之朝午未之晝而始枯矣 心與事接 氣爲物疲 於斯時也 不敬何以清之 故帝典曰 夙夜惟寅 直哉惟清 寅者敬也 夫不清由不直 不直由不寅 故寅者所以斬截此邪心 割斷此浮氣者也 浮氣去邪心退 而始有以復乎味爽平朝之寅矣 刀之有警乎余也 大矣乎 銘曰 嗟刀乎 嗟刀乎 爾光燦然而破膠也 爾響砉然而剗茅也 常湛湛也 常惺惺也 字之曰操 刀乎刀乎 惟爾之勞。

三寅刀라는 것은 寅年·寅月·寅일에 만든 칼인 데, 베고 자르는 데 쓰인다. 寅은 하루 가운데 味爽(黎明)의 때이다.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니, 그러므로 伊尹은 말하기를 '동틀녘(味爽)에 크게 德을 밝히시어'라 하였다. 또 아침(平明)의 때이다. 사람의 氣가 浩然해지니, 그런 까닭으로 맹자는 말하기를, '아침의 맑은 기운(平朝之氣)'이라 하였는데, 辰時·卯時의 아침을 지나서 午時·未時의 낮 이름에 미쳐서 흩어져버린다. 마음이 일과 더불어 접촉이 되면 氣가 사물에 의해 피곤해진다. 이때에는 공경함이 아니고서 어떻게 맑아지겠는가? 그런 까닭으로 〈帝典〉에서 말하기를, '밤낮을 공경하여 곧게 하여야 깨끗할 것이다(夙夜惟寅 直哉惟清)'라고 하였다. 寅이라는 것은 敬이다. 무릇 맑지 않음은 곧지 않음에서 비롯되고 곧지 않음은 寅이 아님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寅이라는 것은 이 사악한 마음을 배어버리고 이 뜬 기운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뜬 기운을 제거하고 사심을 물리치게 되면 비로소 다시금 味爽·平朝의 寅을 회복함이 있다. 칼이 나에게 경계함이 크도다. 銘에 이르기를,

아! 칼이여! 아! 칼이여! 너의 빛은 번쩍이며 아교처럼 굳은 것도 깨뜨리는구나. 너의 소리는 바람을 가르며 대풀을 깎아내는구나. 항상 검푸르면서도 항상 빛이 맑구나. 이름지어 말하기를 조(操)라 하니, 칼이여! 칼이여! 오직 너의 수고로다.

● 자료9 - 趙龜命(1693~1737) : 『東谿集』 卷12 〈四寅刀賦〉

余方佩四寅刀 偶閱谿谷集 有三寅劔賦 仍用其韻 擬之

내가 일찌기 사인도를 차고 다녔는데, 우연히 『谿谷集』을 보니 〈三寅劔賦〉가 있어서 이에 운자를 차용하여 본떠서 지었다.

余昔鑄刀于四壬寅 寅辟弗祥 俗則云然 加之壬者 盖取諸納音之金焉 壬水寅木 亦具貞元 寅爲猛虎 舞爪厲巖 壬乃太陰 助其芒寒 爰飾爰佩 用寅月辰 六窮陰數 物莫競尊 妖孽迎而螫粉 魑魅揮爲草菅 惟其奪天之機 允矣希世之珍 然而人有慧劔藏于一身 割之以義 磨之以仁 刃指而百怪隕其魄 光達而長夜破其昏 其用也大 可以塞宇宙 其斂也小 可以納彈丸 豐城之埋不足稱 其氣射牛躔 旌陽之鍊不足誇 其威鎮蜚螽 斯爲勝邪攝魔也至矣 又奚藉乎四寅之神 盖君子之道 內外勉旃 佩之外者 司於身之官 葆之內者 命於心之君 砉然響然 均試堅頑 則神物之氣類相配 豈但在延津之洪瀾。

내가 옛날에 四壬寅에 칼을 만들었는데, 寅은 상서롭지 못한 것을 물리친다고 속설에 이르니, 壬을 더한 것은 대개 納音의 金에서 취한 것이다. 북쪽인 壬의 水와 동쪽인 寅의 木은 또한 겨울인 貞과 봄인 元을 갖추고 있다. 寅은 맹호가 되는 데 손톱을 늘리고 이를 간다. 壬은 곧 太陰이니, 칼날 끝의 차가움을 도와서 이에 꾸미고 차는 것인데 寅月辰을 썼고, 6은 陰의 數를 한껏 하였다. 어떤 물건이 그보다 월등함을 견주겠는가? 요망한 것들이 달아나다가 산산이 부서지고, 도깨비가 휘둘러 풀처럼 잘린다. 생각컨대 天機를 빼앗으니 진실로 희세의 보배로다. 그러하여 사람이 慧劔을 소유하여 한 몸에 갈무리하는데, 義로써 베며 仁으로써 갈아내니, 칼날이 가리키면 온갖 괴물이 그 닛을 잃고, 劔光이 달하면 긴 밤 새벽을 깨뜨린다. 그 쓰임은 커서 우주를 막을 수 있고, 그 거두는 것은 작아서 탄환도 들일 수 있다. 豐城에 묻힌 칼이라 칭하기엔 부족하지만 그 氣는 斗星과 牛星을 쓰고, 旌陽의 검이라 자랑하기엔 부족하지만 그 위세는 이 무기의 간사함을 누르니, 이는 사악함을 이기고 마귀를 굴복시키는 데 이른다. 또 어찌 四寅의 신통함에게만 의지하겠는가? 대개 軍자의 도는 안팎으로 노력하는 것인데, 밖에 차는 것은 몸의 관리를 맡은 것이요, 안을 보호하는 것은 마음의 군주가 명한 것이라, 쇠씩 쟁그렁 소리나게 견고하고 완전함을 골고루 시험해 보았으니, 신물의 기운과 유형이 서로 짝하는 것이 어찌 다만 延津의 큰 물결에만 있겠느냐?

- 기타1 - 南冥 曹植(1501~1572) : 『南冥集』 卷1 <佩劍銘>

안으로 밝히는 것은 敬이요, 밖으로 결단하는 것은 義이다.

內明者敬 外斷者義.

- 기타2 - 翁莘煥(1801~1859) : 『鳳棲集』 卷3 <金渭師(尙鉉)家藏古劍銘>
(并序 생략)

劍이여! 안으로 밝히는 것은 智이며, 밖으로 강직하게 하는 것은 義이다. (...
이하 생략)

劍乎 內明者智也 外剛者義也

<ABSTRACT>

A Study on the Symbolization of Korean Tiger Swords in *Joseon* Dynasty

Cho, Hyok-sang

Ingeom, a Korean Tiger Sword in *Joseon* Dynasty, had been produced at the time corresponded to 'In(寅)' which means tiger. Such as, month, day, and year of 'In', month, day, and time of 'In', or month, day, time and year of 'In', it was made. The ancestors in that time kept it as an amulet sword to avert the evils. According to the time when '*Ingeom*' was produced, there are two sorts of '*Ingeom*': '*Samingeom*'(Three Tigers Sword) and '*Saingeom*'(Four Tigers Sword). I will present the concept of '*Ingeom*' in that period and the substance of it in the ancestor's general idea in this study.

This study examines Korean Literatures about '*Ingeom*',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by *Sadaebu* class(Gentry of *Joseon* Dynasty). *Geomseol* (Sword Story) by monk *Sik Youngam* in *Goryeo* Dynasty, and *Geommyeong* (Sword Maxim) *Saminchilseongeom* by Song Mun-heum, *Gamhoe*(Thinking) by Cho Ji-kyeum, *Saindoga*(Song of *Saindo*) by Shin Heum, *Samingeomchan* (Praise of *Samingeom*) by You Un-ho, *Samingeombu*(Ode of *Samingeom*) by Jang Yu, *Samingeonga*(Song of *Samingeom*) by Jeong Du-kyeong, *Samin-domyeong*(Maxim of *Saindo*) by You Han-jun, *Saindobu*(Ode of *Saindo*) by Cho Gui-myeong in *Joseon* Dynasty: these Korean Literatures show the meaning and the imagery of *Ingeom*. After considering of these Korean *Ingeom* Literatures, we can find the three imageries of *Ingeom*: *Byeoksageom* (Amulet Sword to avert Evils), *Uigeom*(Sword of Justice), and *Suyanggeom*

(Sword to improve Spiritual Culture). *Byeoksageom* is the Amulet Sword to avert monsters and evils. *Uigeom* is the Sword of justice to slice villainous retainer and evil men. *Suyanggeom* is the Sword to improve spiritual culture, which had been used by *Sadaebu* class.

'*Ingeom*' of *Joseon* is the special sword that symbolizes the spirit of *Sadaebu* possessed both literary and military accomplishments. It is precious cultural heritage of Korea. '*Ingeom*' includes the meaning of the three imageries(*Byouksageom*, *Uigeom*, *Suyanggeom*) and it has been described in Korean Literatures.

This is very unique fact that Korean Literatures of *Ingeom* and real *Ingeoms* still remain. *Sadaebu* wrote these Literatures as well as possessing *Ingeoms*. In this Study, we would find out the real truth about *Ingeom* of *Joseon* Dynasty. And this would be the basic step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whole Korean Sword Culture.

Key Words : *Ingeom*, *Samingeom*, *Saingeom*, *Byeouksageom*, *Uigeom*